

시설 밖 노숙인 코로나 방역 ‘사각’

휴대전화·인증 수단 없어 접종 예약 어려움
도심 배회 감염위험 노출 “맞춤형 대책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 지역 시설 밖 노숙인들이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생활·자활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들과 달리 도심 곳곳을 배회하는 노숙인들의 경우 신규 입소 권유가 쉽지 않은 데다 정보 부족 등 이상 반응 걱정 등 접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와 광주다시서기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광주지역 노숙인은 총 130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생활시설인 희망원과 자활시설인 무등노숙인쉼터에 입소한 노숙인은 각각 82명, 18명이다.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들은 코로나19 3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시설이용이 제한되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음성 이 통보될 때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모텔 등에 거주할 경우 관할 보건소와 광주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입소 3일 이내 관할 지자체의 협조 아래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희망원과 무등노숙인쉼터에 입소한 노숙인들은 1~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30명으로, 이중 백신 접종자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잔여 백신 신청 등 접종 관련 대부분이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본인 인증 수단이 없을 시 백신 접종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정확한 정보로 접종에 대한 두려움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노숙인들이 대다수인지라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백신 접종을 권유해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다시서기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장에서 만나 백신 접종을 권유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는 터라 강압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킬 수 없는 노릇이고, 잔여 백신 접종 일정을 잡더라도 당일 해당 병원에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설 중심으로 이뤄지는 백신 접종 운영 방침을 거리 노숙인들의 생활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수립해야 하고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노숙인 거주·이용 시설을 코로나19 취약시설이라 판단해 시설 입

소자와 이용자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노숙인들은 결과적으로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설 밖 노숙인들은 추가적인 생활고 뿐만 아니라 방역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거리 노숙인들의 생활근거지 위주로 홍보를 통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접촉 감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추석맞이 한마당

22일 오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1추석맞이 한마당 행사’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추석상차림 체험 키트, 오크강정 등을 받고 있다.

/김생훈 기자

학동 붕괴참사 ‘추모제’ 거행

유가족,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추석인 지난 21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거행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9명 희생자 중 여섯 희생자의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손자와 손녀 등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대신한 김정효 행정

부시장, 임택 동구청장 이병훈·조오섭·이형석·민형배 의원 등 단체장과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목념으로 시작된 추모제는 이진의 유가족협의회장의 추도사로 눈물바다가 됐다.

이 회장은 가족을 참사로 떠나보내 추석을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읽어 갔다.

이 회장은 “그들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추석이다”며 “이유도 모른 채 정전벽력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냥 지나가는 하루로 여길 수 없어 추모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족 한성애씨는 “이 사건은 과실이 아니라 분명 살인이다.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적폐인 불법 재하도급을 방지한 정부, 돈에 눈먼 살인기업 현대산업개발,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비리 관련자들, 관리감독책임을 내팽개

친 광주시와 동구청, 돈 때문에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쓰러뜨린 현장 관계자들은 고인들이 느낀 그 공포와 끔찍한 고통의 책임을 똑똑히 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씨는 이어 “두 눈 부릅뜨고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적폐들을 살살이 찾아내고, 엄중히 처벌해 대한민국 정부와 광주시가 다시는 권력과 돈에 시민들의 목숨을 맞바꿔 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오선우 기자

전남대 8억4천만원·조선대 8억원

수시 전형료 수익 부익부 빈익빈

중·하위 대학과 격차 커

전남대와 조선대의 2022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자가 전년 보다 늘어나면서 전형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군소대학들은 대체로 전형료를 받지 않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2일 광주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전남대가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163명 모집에 2만5,591명이 지원해 8.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시 지원자는 2021학년도 2만1,486명보다 4,000명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전남대의 2022학년도 전형료 수입은 2021학년도 7억3,000여만원보다 1억1,000여만원이 증가한 8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전남대는 전형방식과 학과에 따라 지원자 1명당 3만~6만3,000원의 전형료를 받고 있다.

조선대도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를 마감한 결과, 3,695명 모집에 1만9,737명이 지원해 5.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선대의 수시 지원자는 2021학년도 1만8,000여명보다 1,000여명 증가했다. 조선대 역시 2022학년도 전형료 수입이 2021학년도 7억7,000여만원보다

늘어난 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선대는 전형방식과 학과에 따라 3만~8만원의 전형료를 받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전형료 수입 증가에는 올해부터 학부제로 변경된 약대가 효과 노릇을 했다.

전남대의 경우 13명 모집에 382명이 지원해 29.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선대의 경우 38명 모집에 무려 1,202명이 지원해 31.6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단계별 전형(서류·면접·실기) 대상자 중 1단계 서류전형에 탈락할 경우 전형료 일부를 돌려준다. 반면, 호남대와 광주대는 대부분 학과가 전형료를 받지 않고 있어 수입이 미미하다.

특히 추석 이후 수시 모집에 나서는 2년제 대학은 전형료 수입에 대해 기대는 고사하고 정원을 채울지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수시 전형료 수입만 봐도 지역 중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 간 격차가 크다”며 “시간이 갈수록 학생 모집, 대학 경쟁력 면에서 대학 간 간격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재판 4곳서 제각각 진행

부실 철거 개입 8명·업체 3곳 ‘같은 혐의 따로 재판’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부실 철거에 개입한 당사자들의 재판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실 철거를 지시·이행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김리자, 하도급 업체 및 원청 현장 관계자 등 8명과 업체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이다.

이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은 합의부 1곳(형사11부), 단독 재판부 3곳(형사2단독·형사8단독·형사10단독)에서 별도로 열리고 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기소했으나 사실상 같은 정점을 다루고 있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법원이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결국 4차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모두진술이 매번 반복됐다. 향후 증거 조사를 위해 신청한 증인들도 상당수 검쳤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는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유언비어들까지 겹쳐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부디 같은 쟁점의 사건들을 병합해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40평(전용) 2억 5천(용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 5천(용3억)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 (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투자확신/강력추천! 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9천만 ◆ 매매 13억 (용6억 5천) ▶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지정유, 입주맞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 010-6670-9800	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소터디 광주 서구 치평동(아파트) ▶ 감정이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 감정이 5억1천 →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 감정이 13억4천 → 최저가 1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 감정이 2억9천 →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이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이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이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 전남 화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이 10억 → 최저가 5억9천 (9/16) 화순군 백이면 (근린시설) ▶ 감정이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 감정이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향통면 (공장) ▶ 감정이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이 2억7천 → 최저가 7천 (10/12) 시외 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 감정이 6억3천 → 최저가 2억1천 (9/14)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이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 062-382-5500